데스크 시각

우리가 '오월 광주'를 대하는 자세

김미은
편집부국장·문화부장

지난해 가장 소중한 인연 중 하나는 충남 아산 거산초등학교 6학년생들이었다. 아이들은 '5·18'을 공부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에서 오월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들'을 관람했다. 공연장에서 우연히 아이들을 만난 나는 후배들 선물로 '5·18 교과서'를 1년 동안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썼었다.

올 초 교과서를 전달 받았을 때, 책 뒤편에 실린 짧은 추천사들을 보고 새삼 '광주 사람들' 마음은 다 같구나 싶었다. 오월 동화 '기찻길 옆 동네'를 쓴 김남중 작가의 마지막 문장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나의 마지막 문장은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였다. 아이들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곤 했는데, 감동한 이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기특하고, 고마운 일"이라는.

문화전당 '미디어 월' 존폐 공론화를

회사로 출퇴근할 때 요즘은 디지털 테마공원 '금남나비 정원'으로 이름이 바뀐 옛 금남공원을 지나온다. 나비 폭포, 별빛 정원 등이 펼쳐지는 공원에서 휴식을 즐기고, 멋진 모습을 사진에 담는 이들을 본다. 옛 전남도청 외벽에서도 오월 이야기 등을 담은 미디어아트를 만날 수 있다. 전당 안내센터에는 유쾌한 콘셉트의 작품을 송출 중이고, 6월이면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외벽에 대형 파사드 작품도 들어선다. 유네스코 지정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관련 사업들로 2025년까지 180억 원이 투입되는 광주시의 대형 프로젝트다. 5·18 광장 분수대 역시 조만간 미디어아트로 새롭게 탄생한다.

문화전당 주변 등 광주 곳곳이 미디어아트와 함께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옛 전남도청 복원과 함께 철거 예정인 전당의 '미디어 월'(Media Wall)을 떠올렸다.

미디어 월은 옛 전남경찰청 건물에서 아시아문화광장으로 이어지는 벽에 설치된 가로 75.2m, 세로 16m의 대형 철골 구조물로 와이드 스크린 두 개를 갖추고 있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지정 후인 지난 2017년 26억 원을 들여 설치한 미디어 월은 문화전당이 창·제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등 랜드마크 역할을 해왔다. 4월 현재 송출된 작품은 2400여 건에 달하며 현재도 신규 콘텐츠를 공모 중이다. 문화전당은 지금까지 240여 건의 5월 관련 콘텐츠도 송출했다.

미디어 월은 복원될 옛 전남도청을 가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올해 안에 사라질 운명이다. 하지만 미디어 월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고, 철거 반대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도 많다. 경찰청 뒤쪽 벽면에 자리하고 있어 도청 원형 복원의 의미를 해치지 않으면서 오히려 예술로 승화된 작품들을 통해 '5월 광주'의 미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또 시의 발전 동력 중 하나로 문화·관광 사업의 핵심인 미디어아트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존치에 동의하는 사람도 많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실내 밀집 행사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라는 점도 장점이다.

5·18이 광주 정체성의 핵심이고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하지만 5·18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건전한 의견 개진과 순수한 비판마저도 머뭇거리게 만든다면 그건 분명 문제다. 오월과 관련해 '다른' 이야기를 할 때면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모두가 침묵해 버린다면 5월은 특정인의 이야기에 머물고 만다. 박제화된 오월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사실, '40주년'이라는 큰 산을 넘으며 5월은 광주 사람들에겐 무덤덤한 일상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5월 단체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들도 눈에 띈다. 1980년 광주가 경험했듯, 가장 무서운 건 '고립'이다. 그래서 미얀만 민주화 운동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것도 광주였다.

'5월 광주' 성역이 돼선 안 된다

고(故)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말은 인상적이다. "광주가 광주를 너무 내세우면 문화중심도시가 못 돼. 나를 비워야 밖에서 나를 채워. 광주에서 일본을 보고, 중국을 봐야 해." 광주가 광주를 아시아에 강요하지 않고, 아시아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될 때 진정한 문화 중심 도시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 말은 그대로 '5월 광주'에도 적용할 수 있을 듯하다. 광주시민들이 광주 이외의 외부인들에게, 오월 관련 사람들은 다른 광주 시민들에게 너무 자신만을 내세우지는 않았는지,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중심은 비워두었는지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다.

도시가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정해진 답은 없다. 하지만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필수다. 미디어 월 논의가 '5월 광주'라는 거대한 담론을 둘러싼 활발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

참, '시간을 칠하는 사람들'(5월 18~22일 문화전당)은 올해도 상연된다. 놓치기 아까운 작품이다.

/mekim@kwangju.co.kr

은펜칼럼

코로나 다시 보기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

코로나19와 함께 세 번째 봄이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4월 18일 전면 해제 되었다. 2020년 3월 도입 이후 2년 1개월 만의 일이다. 4월 25일 감염병 등급도 2등급으로 조정되었다. 마스크 착용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첫 확진자는 2020년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35세 중국인이었다. 그 후 1년이 지난 2021년 1월 19일까지의 누적 확진자는 7만 3115명, 사망자 1283명, 치명율은 1.75%이었다. 1년이 또 지난 2022년 1월 19일까지 누적 확진자 70만 명, 사망자는 6452명, 치명율 0.19%였다. 올해 4월 25일 현재 누적 확진자는 1690만 명, 사망자는 2만 2243명, 치명율 0.13%다.

연령별 확진자는 40대가 261만 명(15.5%)으로 가장 많다. 20대부터 40대까지는 약 240만 명 정도로 거의 비슷하다. 사망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아지며 80세 이상이 1만 3029명(58.8%)으로 가장 많다. 치명율은 2.68%다. 생산 연령 인구의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여자가 896만 명, 남자는 796만 명이다.

지역별 비율은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서울·경기 지역이 47%로 가장 많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17일에 62만 13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점차 감소하여 4월 25일에는 3만 4370명이었다. 전 세계의 확진자는 5억 900만명, 사망자는 622만 명, 치명율은 1.24%다. 미국(8090만 명)·인도(4310만 명)·브라질(3030만 명) 순이다.

이번 코로나19 감염증을 일으킨 바이러스(SARS-CoV-2)는 2003년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을 일으킨 바이러스와 같은 종으로 박쥐에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전자 구조가 거의 일치한다. 2020년 1월 23일 우한연구소에서 발표되었다. 이후 다섯 종의 변이가 등장하였다. 델타 변이는 2020년 10월 인도에서 최초로 확인되었고 지금의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는 2021년 11월 다수의 국가에서 동시에 확인되었다.

백신은 감염과 증식을 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독력을 약화시킨 생백신, 바이러스 찌꺼기를 이용한 사백신,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합성 정제한 단백질 백신,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다른 바이러스 껍질로 포장한 재조합 바이러스 백신, 유전 정보를 DNA와 mRNA에 넣은 DNA백신 및 RNA백신이 있다. 백신마다 장단점이 있다. 백신의 효율이 높을수록 면역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 부작용의 발현이 커질 수 있다.

치료는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 치료와 항바이러스 치료가 있다. 현재 상용화된 코로나 항바이러스제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두 가지가 있다. 인체 세포 내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수가 약의 역치를 넘어서기 전,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투여해야 해야 효과적이다. 약이 세포막을 통과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항암제처럼 개발도 어렵고 부작용도 많다. 불완전한 백신과 치료제, 계속되는 변이로 집단 면역은 어렵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감염을 피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법을 빨리 찾아야 한다.

확진자와 사망자의 증감을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일의 우리의 모습 중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꼼꼼하게 찾아 보는 일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사스·신종플루·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19의 경험으로 6년 주기로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이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병을 일으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기도 한다. 지금은 이 정도로 끝나가는 듯 보일지 모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또 다시 나타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내일로 가는 길에 발생한 '예측하지' 못한 사건일 수도, '예측할 수 있었던' 사건들 중 한 조각일 수도 있다. 역사적인 선례들을 보면 전쟁 이후에는 호황이 시작된 반면, 팬데믹이 끝난 뒤에는 장기 침체가 찾아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변화시킬 내일과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무언가는 해야 할 듯싶다.

기 고

'포스트 오미크론'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코로나19는 전 세계에서 2019년 12월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다. 국내에선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광주시도 그해 2월 3일 첫 감염 사례가 나왔다. 그때 감돌았던 분위기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깜깜한 암흑 터널에 들어섰다고나 해야 할까? 마치 14세기 중세 유럽에서 대유행한 흑사병과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 당시 상황이 재현된 듯한 공포감에 둘러쌓였던 것이다.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우리는 그간 겪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대구발 대유행, 수도권 대유행을 거쳐 어느 곳이 시발점인지도 알 수 없는 산발적인 유행, 델타 변이의 출현,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른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까지 유행의 시기마다 '이제는 코로나가 지나가려나? 아니…, 제발 지나가 주세요'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의 결실로 이제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여러 분야에서 활기를 되찾는 모습들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잘 준비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 본다.

광주는 국내외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가장 잘 이뤄지고 있는 모범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의 선제 검사 의무화, 해외 입국자 선제 검사,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 시청 광장을 활용한 초대형 선별검사소 설치와 밤 10시까지 검사 시간 연장, 최단 시간 내 결과 통보 등 덕분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을 실시했고, 이들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많이 사는 곳에 찾아가는 이동 검사소와 접종센터를 운영해 고달픈 타국살이를 하는 외국인들이 집단 감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미크론 확산이 최절정을 이루었을 때는 전국 최초로 민관이 함께 중증 장애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구성하고, 중증 장애인 검사 전담 차량 운영, 24시간 장애인 전담 상담 창구 운영 등의 시책을 펼쳐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지역 의료계도 취약한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 참여했으며, 소아·분만·투석 등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분야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가장 먼저 갖출 수 있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한다.

이토록 멋진 광주에서, 방역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듯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 그건 결코 누구 한 사람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다.

우리 광주에는 특별함이 있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는 수식어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을 거쳐 만들어진 나눔의 공동체 정신이 그 원동력이었다. 시민 여러분과 방역 및 의료 관계자들께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을 넘어 포스트 오미크론, 엔데믹(풍토병)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당면한 목표는 예방 접종률은 높이고 고위험군과 감염 취약층의 치료 체계를 강화해 중증화와 사망으로의 진행을 막고, 일반 의료 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여태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시민과 함께 방역 1등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오미크론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생각과 방향이 실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을 믿고, 이것 또한 우리의 자산인 광주 정신으로 '민관이 함께 그 매듭을 풀어나갈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어렵고 지난한 길을 걸어 왔고, 많은 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관심과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말 한 마디라도 애정과 공감 그리고 감사를 담아 전하고, 서로를 감싸 안을 수 있으면 좋겠다.

社說

'마지막 방패' 실외 마스크 해제 신중해야

방역 당국이 지난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한 데 이어 그제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영화관과 실내 공연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도 허용했다. 다음달 말부터는 확진자에 부여되는 7일간의 격리 의무가 폐지되며, 진단·검사·치료 등 모든 의료체계가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된다.

한데 방역당국은 실내 취식을 허용하면서도 실외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감염 전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물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다가, 통풍이 되는 야외에 나갈 때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일관되지 못한 방역 지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와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실외 마스크와 확진자 격리 해제 등에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과학적 측면만 보면 실내와 비교해 실외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떨어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인수위는 '실외 마스크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발표할 '코로나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에 어떠한 방안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대국민 권고문을 통해 "정부가 밝힌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현재의 국내 코로나19 감염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며 "가장 기본적인 개인 보호구인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여전히 하루 수만 명씩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감염 우려다. 마스크 착용 여부는 정치적 잣대가 아닌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전남 방문의 해' 침체된 관광산업 활력소로

올해와 내년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함께 지정한 '전남 방문의 해'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일상 회복이 가시화되자 전남 지자체들이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객 선점을 위해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는 '청정 힐링의 고향, 전남에서 만나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17개 신규 관광상품을 내놓았다. 세계유산 문화자원 관광상품, 전남 캠핑박람회, 청년 대상 남도 문화관광 페스티벌, 드라이빙 투어 등이 대표적이다.

전남도는 특히 '나홀로 여행' 수요 증가와 친환경 여행 트렌드에 발맞춰 도내 시군의 차별화된 관광산업을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침체된 관광사업을 살리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맞춤형 관광지로 입소문이 나면서 전년보다 5만 명 이상 관광객이 늘어난 여행지가 13곳에 달하는 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년째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전남 지역 관광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한국문화관광원의 '국민여행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3877만 명으로 전년도(6254만 명) 대비 38%가 줄었고, 관광객들의 지출액도 무려 48%나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도와 시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맞손을 잡은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전남은 개발에서는 뒤졌지만 덕분에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관광자원이 시군마다 산재해 있다. 특히 때 묻지 않은 청정 자연환경으로 코로나 시대에도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이러한 강점을 십분 활용해 국내외 관광 수요를 적극 흡수하고, '전남 방문의 해'가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광 종사자들에 대한 서비스 교육과 홍보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징비록

제20대 대선이 끝난 지 50일이 지났다. 국회 의석수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면서 정권은 5년 만에 보수 정당으로 넘어갔다. 대선 과정에서 '혁신과 개혁'을 외쳤던 민주당은 패배 이후에도 이렇다할 변화를 이뤄 내지 못하고 있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한때는 '20년 집권론'을 꺼내 들었던 거대 여당이다. 허무하게 정권을 뺏기고도 철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은 5년 전 차디찬 광장 바닥에서 촛불을 들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 준 민심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지금은 정권을 넘겨준 원인과 배경에 대해 통렬하게 자성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한데도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꼼수 탈당'에 '사보임'에 못난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

여태껏 무엇을 하고, 정권 교체기에 조급하게 서두르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또한 그 논란의 중심에 민주당 텃밭인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두 명이나 포함돼 실망스러움을 더해 주고 있다.

최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이 눈에 띄었다. 민주당의 대선 과정을 복기하고 패인 등을 진단하는 내용이었다. 어찌 보면 '박용진의 징비록'이었다. '징비록'(懲毖錄)은 조선의 문신 유성룡이 임진왜란·정유재란에 대한 경험과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징비는 중국 고전 '시경'에 나오는 '스스로를 미리 징계해서 후환을 경계한다'는 의미의 문장에서 따왔다. 방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왜구에 의해 유린당한 왜란의 경험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계하자'는 뜻에서 책의 제목으로 사용됐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혹독한 내부 진단과 토론을 통해 징비록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 나아가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개혁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진보·중도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